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북핵 해법과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밝힌다6

지난 7월 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신 한 반도평화비전'을 발표했다. 귀국 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 한반도 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참으로 아프고도 진솔한 고백이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강대국의 힘에 휘둘리고 눈치 보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국가원수로서는 하기 힘든 용기 있는 발언이다. 해방 후 38선 설정처럼 한반도 문제가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빠진 채,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불행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더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남북문제는 남북한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풀어나가야 한다. 주변 강대국은 우호협력의 대상이지 한반도 문제의 주역(主役)도 아니고 주체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를린 구상'에서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어야 하고, 쉬운 일부터(先易後難) 시작해야 한다고 내가 줄곧 주장해온 말과 일치되는 선언을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건이 되면 만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 더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서 나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긴장완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 비합리하지 않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우려했던대로 북한은 '외세를 부추겨서 무장해제(비핵화) 시키려는 술수다. 근본적인(대북)정책과 입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다만 6·15남북 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응을 내놓았다. '진미 시대와 동족 대결의 추악한 시대주의자'라는 첫 반응에서 많이 순화된 대응이었다.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핵 개발 포기나 중단은 없다고 신년사에서 선언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비핵화와 제재를 강조하면서 대화와 회화를 제안하는 것은 모순이다.

어느 신문 제목처럼 '체제는 더 세계, 당국은 더 크게' 하면서 약자를 달래려고 하고 있다. 교류협력과 평화협정으로 긴장완화와 체제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제재와 비핵화를 강대국과 손잡고 압박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는가. 상호 비난과 갈등 대립과 충돌로 얼마나 불필요한 엄청난 국력낭비를 했다는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신물나게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평화와 통일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갔다.

나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웅비를 간절하게 바라는 북방정책(햇볕정책) 신봉자다. 그래서 지금도 통일정책을 연구하고 배우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글도 쓰고 있다. 팔통 보수들이 보면 좌파와 종북이나 빨갱이로 보일지 모르나, 북한 체제가 옳다거나 그들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결과 제재만으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되, 대화와 교류협력,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십 배, 수백 배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색깔론은 지난 군사독재 시절과 보수정권들이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남북문제를 악용한 악취 진동하는 배설물이다. 지금도 흘러넘치는 정권유지 지역주의와 함께 종북몰이 색깔론에 항수를 느끼고 이용하려고 들먹이는 정신 닢 떨어진 정치인이 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정치학의 명제가 생각난다. 사람이 사람대우를 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에 있는 듣기 좋은 선한 말을 총동원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으로 정치 쇼나 하면서 철 지난 지역감정과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북 적개심이나 고취시키고 조장하는 정치인과 정치세

력, 어용 관변단체는 가차 없이 철폐를 내리쳐서 청산해야 한다.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이 없이는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무한 경쟁과 무한 도전의 이 시대에서 살아 남기가 어렵다. 좌절과 실패, 수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자포자기와 낙오,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대북 담당 책임자들에게 권고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까지도 제재하겠다는 2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하려고 강경화 외무장관이 미국과 협의 중이다.

내가 직접 들었던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하나를 들려 드린다. '고양이가 쥐를 몰 때 도망갈 구멍을 남겨 두고 본다.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된다' 사람이 도망갈 구멍도 없는 막판 궁지에 몰리면 '이판(理判) 사판(事判) 죽을 판'이 되어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려들 수밖에 없다.

한미 협력과 한일 협력, 북중 협력과 북러 협력의 대립 경쟁지역이요, 충돌 지점인 한반도의 운전석에 조금 앉아 있더니 힘들어서 '우리 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는 문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힘내시라고 뜨겁게 응원한다.

해방 후 70여년 쌓여온 전쟁과 대립, 이질화와 분단의 문제가 어찌 단순하고 쉽게 풀릴 수 있겠는가.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갖고 '통일의 초석을 놓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베를린에서의 선언을 초심처럼 간직하고 대화와 교류협력, 평화정착과 통일의 대 장정(長征)에서 줄기차게 추진하여 민족통일의 큰 전기를 이루고 큰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社說

데이트 폭력 막아야 한다

'데이트 폭력'은 현재 연인이거나 과거 연인이었던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폭력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경찰청의 '연도별 연인간 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된 데이트 폭력 건수는 평균 7,206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7천 건 이상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폭행이나 보복 등은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정상 참작이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다.

데이트 폭력이 단순 폭행에서 상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전문가들은 신체 상처 등 흔적이 남는 폭행만이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데이트 폭력은 감성적·언어적, 성적, 신체적, 행동제어형, 디지털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일

반적으로 알려진 물리적 폭력은 '신체적 측면'에 해당한다.

데이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모 등을 비하하는 것은 '감성적·언어적 측면'의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피임 도구 사용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성적 측면'의 데이트 폭력이다.

데이트 폭력은 애정이라는 이유로 연인의 사생활을 간섭하거나 구속하려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상대를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데이트 폭력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이 어렵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당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書 彩 仙 靈

그림 화
채색 채
선선 선
신령 령

書彩仙靈

▷ 뜻: 신선과 신령의 그림도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장마철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장마는 6~8월까지 한반도 상공에서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과 남쪽의 뜨거운 고기압이 만나서 생기는 커다란 전선이 형성되는 것으로 장마지역은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 많은 비와 천둥번개를 동반한다.

장마철에는 빗길운전, 위생관리, 주택 및 건물 침수, 낙석 등 주의하고 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비오는 날 학교주변이나 아파트 단지 내 잦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가 오면 운전자는 차에 흐르는 빗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질 수 있고 우산을 쓴 어린이들은 우산에 가려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또한 우산을 쓰지 않은 아이들은 비를 피해 빨리 건너기 위해

갑작스럽게 도로를 횡단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운행 전 와이퍼 등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학교주변이나 아파트 단지 내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지날 때 서행 및 어린이들은 빨간 신호등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밝은 색의 우산과 옷을 갖추게 하고 갑작스럽게 뛰지 않도록 하는 교육은 필수다.

또한 학교 주변이나 아파트 단지 내 이중 삼중으로 주·정차된

차량은 운전자나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 할 뿐 아니라 화재나 환자 발생 등 긴급출동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가 접근할 때 소방통로를 방해하는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급한 신경 써도 예방할 수 있는 일을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장마철에는 운전자나 부모들이 차량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교육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황재상 / 여수소방서 화력119구조대

湖南新聞 本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